

2018 전주문화재야행(夜行)



한옥마을의 밤  
매력적인 거리  
전통문화 향연  
전주다웠던 문화재  
술사 야심작(夜深作)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의 색다른 야간 풍경과 전주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있는 다양한 문화재, 다양한 공연을 함께 즐기는 2018 전주문화재야행이 펼쳐졌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25일 경기전과 종남문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2018전주문화재야행'의 첫 번째 야행을 선보였다.

문화재 중심의 잔치마당인 이날 전주문화재야행은 '문화재 술사의 八(팔)야심작'을 슬로건으로 △빛의술사 △문화재술사 △이야기술사 △그림술사 △공예술사 △음식술사 △여행술사 △홍정술사 등 8개 색션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참여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들면서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되는 전주시의 대표 기행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성공적인 실험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전통 공연과 문화재 역사 콘텐츠를 즐기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8시 경기전 광장에서 열린 개막공연에서는 선선한 바람 끝에 밤이 열리고 어진 속에 잠들어 있던 태조 이성계가 역사의 문을 열고 경기전 밖으로 나와 방문객을 맞이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우리 무예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발산하는 '지무단'의 검무 시범이 선보였다. 또, △방수미 명창의 흥겨운 소리 △휘늘어진 거대한 용 깃발이 관객의 시선을 휘어잡으며 시작된 '합굿마을'의 기적놀이 퍼포먼스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절대가인' △전통과 현대의 품짓을 대중의 시각에 맞춰 새롭게 선보인 '두댄스(DO Dance) 무용단' △전주를 대표하는 퓨전 국악 그룹인 '소리에(愛)'의 공연으로 채워졌다.

또한, 이날 이른 저녁부터 청사초롱과 어진반차도와 함께 알일이 수놓은 한지등이 거리를 밝혀 고즈넉한 한옥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관광객이 손수 만든 한지등이 거리를 가득 채우면서 종남문과 경기전 일대 거리가 수려한 빛으로 물들었다.

이와 함께, 경기전 꽃담길과 경기전 서쪽 돌담길에서 진행된 유료체험 프로그램인 한지등 만들기 체험과 실록 만들기, 해학 시주풀이, 어진타본, 목판 인쇄 체험 등에도 연인 및 가족 단위의 참가자가 줄지어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종남문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도 종남문에 간직된 역사인 '동화농민혁명'을 재현하는 플래시몹을 통해 교육적 측면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간여행자의 종남문은 조선시대 저잣거리를 연상케하는 세트 구성과 수문장과 기생, 파계승 등 다양한 역할을 지닌 배우들이 광장을 메워 관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또 두 시간마다 웅장한 성벽에서 울려 퍼지는 대금과 가야금의 선율은 시대의 벽을 타고 관객의 귀에 전해졌다.

경기전 서문 돌담길에서는 이야기술사(배우)가 역사적 고증을 통해 풀어낸 조선 왕조실록의 숨겨진 이야기와 조선시대 전주를 대표하는 그림인 전주지도, 태조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 관객에게 내용을 손쉽게 전달함으로써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특히, 올해 첫 선을 보인 문화재야행의 심야특화프로그램이자 대표 프로그램 '왕과의 야행'은 예약 시작 일주일 만에 350명이 접수하면서 불가피하게 최대 수용인원인 250여 명을 선착순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26일 자정부터 1시간 30분동안 경기전 경내에서 진행된 왕과의 야행은 문화해설사의 역사 해설을 들은 후 홍살문 신도(神道)에서 펼쳐지는 전통 가·무·악과 다례는 경기전의 수려한 풍광과 어우러져 궁중연회를 연상케해 참가자들의 습속인 탄성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전주문화재야행에서는 경기전 돌담길 주변으로 왕의 음식이라 전해지는 '포계'를 판매하는 음식술사들의 모습도 이목을 끌었으며, 경기전 홍살문의 전통예법으로 올리는 헌다례의 의미와 차 한 잔의 휴식을 선사하는 '달빛차회'도 진행됐다.

이밖에, △창년작가 및 무형문화재 작품 경매쇼 △전주를 거점을 활동하는 14개 단체의 거리공연 등 전주가 간직한 풍부한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되는 전주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다.

전주문화재야행은 이날 개막야행에 이어 오는 9월 14일 더욱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문화재야행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063-232-99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혜은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